

굿바이 상암불낙스... ‘뭉쳐야 쏜다’ 최종회 5% 종영

7개월간의 대장정 마무리 ‘어게인 농구 대잔치’

고려대·연세대 치열한 명승부... 고려대 우승

‘뭉쳐야 쏜다’가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예능 ‘뭉쳐야 쏜다’ 최종회는 전국 유료방송 가구 시청률 기준 5%로 막을 내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어게인 농구대잔치’의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 기아자동차 팀과 마지막 승부를 펼친 ‘상암 불낙스’의 아쉬운 작별 인사가 그려졌다.

농구대잔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마련된 대회인 ‘어게인 농구대잔치’는 열렬한 라이벌 고려대 팀과 연세대 팀의 치열한 명승부 끝에 고려대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25년 만에 리턴 매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실력과 승부욕은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승패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전개됐다.

기아자동차 팀과 ‘상암 불낙스’의 3, 4위전 경기 역시 흥미진진했다. 끝까지 면하겠다는 ‘상암 불낙스’와 ‘기아왕조’의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기아자동차 팀의 투지는 결승전 못지않은 긴장감을 보였다. 약전 고투 끝에 승리는 기아자동차 팀이 차지하면서 3주간 진행된 농구 전설들과 함께한 ‘어게인 농구대잔치’도 끝을 맺었다.

대회가 끝난 후 여느 때와 같이 응기종기 모여앉은 ‘상암 불낙스’에게 하재 감독은 “‘상암 불낙스’로 한 팀이 되어 열심히 뛰어진 전설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농구 인기에 발판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느새 팀에 애정이 깃든 전설들은 진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지난 2월 첫선을 보인 ‘뭉쳐야 쏜다’는 농구 인기의 부흥과 과거 전 국민을 열광시킨 농구대잔치의 부활을 꿈꾸며 포문을 열었다. ‘농구대통령’ 하재와 ‘매직 히프’ 현주엽이 감독과 코치로 뭉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농구팬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

각 스포츠 종목의 레전드로 불리지만 농구는 알지 못하는 전설들이 모여 힘을 맞춘 첫 경기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끝판왕이었다. 특히 ‘상암 불낙스’ 경기를 보며 멘탈 붕괴가 된 하재 감독과 중계석에서 엎드려 폭소를 터트리는 현주엽 코치의 리액션은 웃음을 자아냈다.

첫 경기를 치른 후 ‘상암 불낙스’는 전문적으로 포지션을 배치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해 어엿한 농구팀의 대형을 갖춰갔다. 이후 이동국, 안정환, 윤경신을 필두로 에이스 라인까지 구축하면서 빠르게 성장, 레전드 농구팀들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수준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침체된 농구 인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뭉쳐야 쏜다’의 다양한 시도가 흥미를 이끌었다. 문



경은, 전희철, 우지원, 김훈 등 레전드들과 허웅, 허훈, 송교창, 유현준, 정창영 등 현역 스타들, 슈퍼 루키 이현중, 차민석, 이원석까지 농구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 손지창이 이끄는 연예계 농구

단 1호 ‘피닉스’, 농구 절친들이 뭉친 ‘농친소’(농구를 잘하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전설들의 주니어들이 참여한 가족 특집 그리고 농구대잔치를 재현한 ‘어게인 농구대잔치’ 등 다채로운 특집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팻비타민2 내달 첫 방송

MC 박수홍·티파니영·황광희

박수홍과 티파니영, 황광희가 KBS 1TV 반려동물 예능프로그램 ‘팻비타민’ 시즌2의 새로운 MC로 뭉친다.

19일 ‘팻비타민2’ 측에 따르면 박수홍, 티파니영, 황광희는 오는 8월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2의 3MC로 발탁됐다.

‘팻비타민2’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시즌1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박수홍은 반려묘 다홍이를 키우는 애묘인으로, 다홍이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고양이 다홍’을 자체 운영할 정도로 고양이 사람이 지극하다. 본인 것보다 다홍이의 SNS 계정을 더 열심히 관리하는 정성으로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팻비타민2’에서도 애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티파니영 역시 반려견 프린스와 프린세스를 키우는 ‘팻집사’로, 이미 시즌1에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함께 등장에 반려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해 눈길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황광희는 자신과 똑 닮은 푸들 모카를 키우는 모습으로 ‘모카 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광희는 모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해 “제가 정말로 힘을 때 옆에 있어 준 존재가 바로 모카”라며 애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팻비타민2’ 측은 “세 사람 모두 실제 반려인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은 물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슬리피, 비연예인

여자친구...10월 결혼

가수 슬리피가 결혼 발표를 했다.

19일 슬리피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10월 결혼 소식을 직접 팬들에게 전했다.

슬리피는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됐다”며 “결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든든히 내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배우자가 비연예인인 점을 배려해 조심스러운 시기에 조용히 식을 치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려고 한다. 항상 내 일을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점 잊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데뷔 6주년 세븐틴, 13명 모두 플레디스 재계약

K팝 아이돌 그룹 보통 데뷔 7년차 재계약



그룹 ‘세븐틴’ 멤버 13명 전원이 소속사와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원 재계약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19일 “에스엠플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 등 세븐틴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레디스는 “세븐틴 13명 멤버 전원과 당사는 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한 끝에 공감대를 형성, 조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K팝 아이돌 그룹의 재계약은 보통 데뷔 7주년에 한다.

세븐틴은 올해 데뷔 6주년을 맞았

다.

세븐틴 멤버들은 “13명 모두 서로를 향한 믿음과 그간 다져 온 견고한 팀워크로 계속 함께하자는 뜻을 모았고, 앞으로도 ‘원 팀’ 세븐틴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좋은 음악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븐틴은 지난 2015년 데뷔했다.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K팝 그룹이다. 작년 미니 7집 ‘행가래’를 시작으로 스페셜 앨범 ‘; [세미콜론 (Semicolon)]’, 정규 3집 ‘인 오드(An Ode)’에 이어 이번 최근 발매한 미니 8집 ‘유어 초이스’까지 네 작품 연속 밀리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앨범은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5위를 차지했다.

한 때 엑소(X), 방탄소년단(B)과 함께 ‘EBS’로 묶였던(세븐틴(S)) 팀이기도 하다. 현재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며 군 입대를 앞둔 방탄소년단 군백기를 메워줄 팀으로 주목되고 있다. 플레디스는 방탄소년단을 발굴한 하이브 레이블이다.

극장가, 수도권 4단계 첫 주말 관객 25% 감소

블랙위도우·랑중 흥행 열기...코로나 타격 아직 미미



영화 ‘랑중’ 스틸컷.

마블의 블랙비더 ‘블랙 위도우’가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는 주말 사흘(16~18일) 동안 44만5000여명을 동원하며 박

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213만9000여명이다.

지난 7일 개봉한 ‘블랙 위도우’는 개봉 12일째인 18일 오전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올해 최고 흥행작인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19일째 이룬 기록을 일주일이나 앞당겼다.

지난 14일에 개봉한 ‘랑중’에 밀려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내주기도 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1위로 올라섰다.

주말 박스오피스에서는 ‘랑중’과의 격차를 14만명까지 벌리며 저력을 입증했다.

‘랑중’은 같은 기간 30만명의 관객의 모으며 누적 관객 55만8000여명을 기록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봉과 동시에 ‘블랙 위도우’와 함께 쌍끌이 흥행을 이끌며 여름 극장가에 열기를 더하고 있

다.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은 모두 94만여명으로 전주(124만명) 대비 25%가량 감소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된 첫 주말로 다중이용시설에 속한 극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는 10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20% 내외로 봤다.

다만 ‘곡성’ 나홍진 감독과 ‘서터’ 반종 판산다룬 감독이 손잡은 한국·태국의 협업작으로 주목받은 공포 영화 ‘랑중’이 쌍끌이 흥행을 이끌며 예상보다 코로나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랑중’은 시사회를 통해 최초 공개된 후 영화에 대한 다양한 리뷰가 쏟아지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호불호는 초반 화제성으로 직결됐고, 개봉 첫 주 55만 관객을 동원하며 순항 중이다.

뉴스

정부, 응원가 ‘2021 아리랑’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아 새롭게 제작한 ‘2021 아리랑’ 응원을 19일 공개한다.

‘2021 아리랑’ 응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기도 아리랑을 응원가 버전으로 편곡·개사해 만들어졌다.

여주대학교 성운용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음원 제작과 편곡에는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강규웅(Q) 프로듀서,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 김승남 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다. 가창은 ‘와이비(WB)’ 윤도현이 맡았다.

음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저작권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저작권

가창 윤도현 맡아

가중 제도란 저작재산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1 아리랑’은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뿐 아니라 멜론, 지니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누리집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문화부와 위원회는 음원 공개와 함께 9월24일까지 ‘2021 아리랑 한 줄 감상 챌린지’와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한 줄 감상 챌린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누리집에서 ‘2021 아리랑’ 음원을 SNS에 공유하거나 음원 스트리밍 인증 사진을 한 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하면 된다.

‘응원가 부르기 챌린지’ 참가자는 ‘2021 아리랑’ 음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뒤 해당 녹음본이나 동영상상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해당 인터넷 영문 주소를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우수 가창자 1명에게는 위원회 위원장상 수여와 함께 정식 음원 녹음 및 제작을 지원한다.

해당 음원은 저작권 기증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장민호 이어 영탁 코로나19 확진

박태환·모태범과 녹화 여파

트로트 가수 영탁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9일 ‘미스터트롯 토크’ 팬카페에 “영탁이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영탁은 지난 13일 ‘뽕송아학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14일 오전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유지해왔다. 17일부터 이상 증상을 느껴 18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탁은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덧붙혔다.



앞서 지난 13일 미스터트롯6의 TV ‘뽕송아학당’ 촬영에 임한 박태환·모태범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토크6도 모두 검사를 받았다. 장민호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영탁을 비롯 임영웅, 이찬원, 김희재 그리고 MC 붐과 황윤성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